

‘미나리’, 아카데미 6개 후보...윤여정, 韓 최초 오스카배우 기대

작품상·감독상·남우주연상 등 저력

韓 단편 애니 ‘오페라’도 후보 올라

영화 ‘미나리’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배우 윤여정도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로 오스카 후보에 지명됐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5일(현지시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를 발표했다.

영화 ‘미나리’는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스티븐 연), 여우주연상(윤여정), 각본상, 음악상 등 총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한인 2세인 리 아이작 정(정이사)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남부 아칸소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백하고 따뜻하게 그려며 호평받았다.

‘미나리’는 작품상에서 ‘더 파더’(감독 플로리안 셀러), ‘주다스 앤드 더 블랙 메시아’(감독 샤카 칸) ‘뱅크’(감독 데이빗 핀치), ‘노매드랜드’(감독 클로이 자오), ‘프라이밍 영 우먼’(감독 에머럴드 페넬),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감독 아론 소킨), ‘사운드 오브 메탈’(감독 다리오스 마더)과 경쟁한다.

배우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영화사를 새롭게 썼다.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보랏 서브시퀀트 무비 필름’ 마리아 바칼로바, ‘더 파더’ 올리비아 콜먼, ‘뱅크’ 아만다 사이프리트,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스 함께 여우주연상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감독상 등 4개 부문 상을 받은 바 있지만,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여정은 한인 가정의 손주들을 돌보러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다. ‘미나리’는 골든글로브 최우수외국어영화상 등 미국 인콰에서 91개 영화상 트로피를 받았다. 그중 32개가 윤여정의 여우주연상이다.

현재 윤여정은 영화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먼과 함께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수상 기대감을 높인다.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도 한국 작품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계 미국인 에릭 오 감독의 ‘오페라’가 주인공으로 유일하게 아시아 작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페라’는 벽면이나 구조물에 투사되는 설치 미디어 아트 전시를 위해 기획된 작품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애니메이션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에릭 오 감독은 ‘미나리’의 리 아이작 정(정이사) 감독과 마찬가지로 한인 2세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도리를 찾아서’, ‘인사이드 아웃’에 참여했고,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시상식인 ‘안시’의 TV 시리즈 부문 최고상인 ‘크리스탈’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1차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흥성호 감독의 ‘레드슈즈’는 아쉽게 최종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올해 오스카 유력 후보로 손꼽히는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는 감독상과 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 편집상, 촬영상 등 총 6개 부문



에 이름을 올렸다.

‘노매드랜드’는 제77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제78회 골든글로브 작품상 및 감독상, 제26회 크리틱스 초이스 4관왕 등 전 세계 유수 영화제와 시상식을 휩쓸며 194관왕에 올랐다.

자오 감독 개인이 감독과 각색, 편집으로 받은 상만 78개다.

미국 할리우드의 시상식 예측 전문 사이트 골드더비는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에서 ‘노매드랜드’의 수상을 내다보고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마마무 동생그룹’ 퍼플키스, ‘인투 바이올렛’ 공개

박지은·나고은·도시·이레·유키·체인·수안 등 7명으로 구성

그룹 ‘마마무’ 소속사 RBW의 신인 걸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가 베일을 벗었다.

15일 오후 6시 음악 사이트에 데뷔 앨범 ‘인투 바이올렛(INTO VIOLET)’을 공개했다.

RBW에서 마마무에 이어 약 7년 만에 론칭하는 걸그룹이다. 박지은, 나고은, 도시, 이레, 유키, 체인, 수안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팀명 ‘퍼플키스’는 각 멤버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만들어진 음악적 색깔을 뜻하는 퍼플(Purple)과 많은 이야기 속 사랑의 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소재인 키스(Kiss)의 합성어다.

RBW는 “보라색처럼 다양한 음악적 색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

고 있다”고 소개했다.

타이틀곡 ‘폰조나(Ponzona)’는 클래식한 바이올린과 피아노, 그루브 한 리듬과 몽환적인 사운드에 조화를 이룬 ‘퓨전 어벤 힙합’을 표방한다.

RBW는 “스페인어로 ‘독’이라는 뜻을 지닌 만큼 퍼플키스가 그녀들의 매력으로 세상을 물들여줄 것이라는 다짐과 동시에 독이 퍼져가듯 퍼플키스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포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뮤직비디오는 자니브로스 흥원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7곡이 실린 앨범 전체에도 탄탄한 제작진이 참여했다. 프로듀서 김도훈을 필두로 박지영, 강지원 프로듀서 등이 힘을 실었다.



‘오! 주인님’, 조진국 작가 “죽음의 문턱에서 느낀 작품”



오는 24일 오후 9시20분 첫 방송

MBC TV 새 수목극 ‘오! 주인님’ 조진국 작가가 인생작 경신을 예고했다.

조 작가는 16일 “‘오! 주인님’을 처음 떠올린 건 병원이었다”며 “눈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져가야 할 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살아간다는 건 곧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사랑은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그때 내가 느꼈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가’를 시청자들과 재미있게 교감하고 싶었다”고 집필 배경을 전했다.

‘오! 주인님’에는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로맨스와 코미디는 물론 가족극, 애절한 멜로, 의외의 설정까지 곳곳에 잠복돼 있다. 심하게 자극적이고 불편한 설정들 없이도 재미있게 온 세대가 같이 교감하고 볼 수 있는 드라마다.”

그는 “제 모든 작품 중에서 이번 드라마에 가장 애정이 간다. 지금까지 썼던 제 작품들의 결정판이자 제 인생작이 될 드라마”라며 “믿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많은 시청을 당부했다.

조 작가는 ‘소울메이트’, ‘안녕, 프란체스카’, ‘운명처럼 널 사랑해’ 등을 집필했다.

한편 ‘오! 주인님’은 오는 24일 오후 9시20분 첫 방송된다.

뉴스

그룹 신화, ‘불화설’ 봉합 나섰다...“해결책 찾는 중”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들이 불화설 봉합에 나섰다.

신화 리더 에릭은 15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로 오랜시간 서운했던 포인트가 많이 쌓여서 많은 얘기 중에 있다. 해결책을 찾으려 멤버들 노력 중에 있으니, 신화 팬들이라면 개개인에 대한 비판은 멈춰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동완 역시 소셜미디어에 “멤버들끼리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오랜 시간 오해가 많이 쌓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술 잔 4개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김동완은 이날 네이버NOW ‘우승씨네’에 출연해 신화의 불화설과 관련 “해체는 말도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에릭이 지난 14일 소셜미디어에 김동완을 겨냥한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신화의 불화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팀보다



개인활동에 비중을 두고 단체 소통과 일정에는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에릭과 김

동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감탄을 밝히면서 팬들의 걱정을 샀다.

브레이브걸스 ‘롤린’ 역주행 열풍이 상징하는 것들

최근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Rollin’) 역주행 열풍은 상징적이다.

브레이브걸스가 4년 전 발매한 ‘롤린’은 ‘밀보드’(밀리터리 빌보드) 1위라는 수식을 받을 정도로, 군인 사이에서 인기를 누렸지만 일반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군위문 공연에서 이들의 노래를 ‘때창’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군시절을 추억하는 군인들의 댓글 등이 합쳐진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누리면서 일반 네티즌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다.

이후 음원차트에서도 순위가 급상승했고, 급기야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1위를 찍었다.

‘롤린’의 역주행 현상은 올드 미디어 TV의 종연을 확실하게 고한다.

이제 음악-예능 방송 PD를 비롯 전문가들이 새로운 곡을 소개하는 시대는 끝났다. ‘유튜브 스타’ 브레이브걸스를 TV가 거꾸로 모시기 경쟁에 돌입했다. 화제가 된 영상 클립도 대부분 지상파 음악방송이 아닌 국방TV ‘위문열차’ 출연 영상이었

3월7일 발표한 곡이다.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를 비롯 프로듀서 차쿰, 투캅스가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트로피컬 하우스를 접목시킨 경쾌한 업템포 EDM 장르다.

멤버 민영은 뉴시스에 “저희는 처음 이 노래를 받자마자 ‘우리 이제 뜨겠다’했다. 그만큼 곡이 너무 좋았다”고 했다.

이처럼 ‘롤린’의 역주행 사례는, 흥미로운 콘텐츠는 언제든 재발견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악 콘텐츠 시장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콘텐츠끼리 경쟁하던 이전 시대와 달리, 신규 콘텐츠가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중견 아이돌 제작사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2010년대 초 중반에 미처 매력이 발견되지 못한 노래나 곡이 많다”면서 “최근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의 ‘숨들명’(숨어서 듣는 명곡) 등을 통해 과거 곡들이 재조명되고 있기도 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고, 우리도

비 ‘깡’·EXID ‘위아래’ 등 유튜브 알고리즘의 수혜

이에 따라 음악계도 마케팅의 다변화에 관심 기울여

다. 유튜브가 ‘음악 소비’ 플랫폼으로 떠오른 건 이미 몇 년 전이다. ‘밈(Meme)’ 문화와 결합하면서, 노래를 놀이처럼 소비했다.

밈은 재미난 댓글, 영상 속 한 장면을 패러디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1일 1강’ 여고생의 깡(Rain-Gang) 커버’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주목 받으면서 신드롬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비의 ‘깡’ 신드롬이 대표적인 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멤버 하니 춤이 중심이 된 그룹 ‘EXID’의 ‘위아래’ 열풍이 있다.

브레이브걸스 ‘롤린’은 여기에 알고리즘의 수혜가 더해졌다.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누적된 시청 기록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 주는 기술이다. 기존에 본 영상과 비슷하거나 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영상을 이용 화면에 먼저 보이게 만들어준다.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플랫폼도 이 알고리즘 기능으로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했다.

‘롤린’은 밈 문화와 아이돌 음악을 즐기는 네티즌의 성향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를 타고 여러 이용자의 유튜브 화면의 메인을 파고 들었다.

하지만 ‘롤린’이 그저 그런 곡이었다면, 이런 폭발적인 호응은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롤린’은 브레이브걸스가 2017년

이전 그룹이나 노래의 매력을 찾아 참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기존 곡의 재조명은 수동적 문화소비가 아닌 능동적 문화소비에 익숙한 Z세대의 특징과도 맞물린다.

일방적으로 소개해주는 문화 콘텐츠에 매력을 느끼기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발견한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짙다.

한편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숨어 있는 노래에 대한 조명, 팬덤 경쟁의 장이 돼 버린 음원차트 흐름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한다.

몇년 전부터 대중음악계에는 ‘음원차트 1위곡은 있는데 히트곡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1위를 찍어도 팬덤만 알고, 일반 대중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악계도 마케팅의 다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 음반 제작사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이 데뷔 초창기에 TV 등 기존 미디어가 아닌 네이버 V앱을 통해 선보인 웹 예능 ‘달려라 방탄’도 이들의 인기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무조건적인 불량 공세가 아닌, 트렌드에 맞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음악·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IT 등에도 관심이 많은 신입 직원을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